

문학소식

화엄경 여래 출현품 강의를 테이프 나와

불교 방송은 '경전공부 프로그램'에서 인기리에 방송됐던 동국대 불교학과 해주 스님의 <화엄경 여래출현품>을 테이프 제작해 보급한다. 이번...

국악교성곡 '혜초' 28일 다시 무대에



1999년 국립극장에서 초연된 '혜초'를 재공연하는 2부 무대로 구성됐다. 불광마하보디합창단의 '송년음악회'가 28일 오후 7시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전기만·허길양 씨 '목조각' 인간문화재

문화재청은 최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보유자로 전기만(72·사진 위쪽)과 허길양(48·사진 아래)씨를 인정하고, 이진형(45)씨를 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

산사 축제 지역민에 호응

결산 2001년

불교문화계

산사음악회 자리 굳혀= 산사음악회와 지역 축제 순 한해 불교문화계를 이끌어간 핵심적인 두 단어다. 2001년은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지역문화의 해였던 만큼, 불교 문화계 역시 지역 사찰과 연계한 산사음악회와 축제 등이 여느 해 보다 두드러진 해였다. 이번년부터 시작된 산사음악회는 초파일과 가을 단풍제 등으로 이어지며 전국 20여 곳의 사찰에서 다양한 형태로 열려, 도시 지역에 비해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청량사의 경우는 지역민을 비롯 전국에서 5천여 명이 모여 들어 화제가 되었고, 지역 예술인과 함께하는 미용사 작은 음악회, 진원보탑사 음악회 등도 지역의 대표 문화 행사로 자리매김 하는 등 산사음악회는 새로운 불교 문화프로그의 대안으로써 확실한 자리를 굳혔다. 지역 축제 역시 하동양생차축제를 비롯해, 풍화사 불꽃 축제, 무안 연꽃축제 등 전국 곳곳에서 열려 새로운 문화관광의 보고로 적극 활용됐다. 무대예술분야 성과 저조= 연극과 무용 등 무대예술분야는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한 해였다. 불교 사상을 작품에 녹여낸 나비는 헌년을 공군다. 깃다거-연공의 노래, '바리공주' 등 연극과 별반 부처 '동다송' '사천왕' '키르마' 등의 창작 무용 작품이 선보였으나 대중과의 고감 연에서나 양적 질적 측면에서 여전히 열세를 면치 못했다. 특히 지난해 선보였던 '오페라 직지' 등과 같은 우리 문화의 원동력으로서의 불교문화의 저력을 보여줄 대형 무대작품이 없었던 것도 아쉬움을 더하는 부분이다. 서울예술단이 2002년 월드컵 기념 공연으로 준비한 총제작 '갈민대장경'이 지난 9월 부분적으로나마 초연됐지만, 불교 자체역량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무대예술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영상분야에서 영화 '달아라 놀자'가 흥행에 성공함으로써 불교를 소재로 한 영화의 새로운 접근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낳기는 했으나, 상업영화의 소재적 활용이라는 한계성을 드러냈다. 티베트 문화 관심 여전= 달라이 라마 방한문제가 더불어 촉발됐던 티베트에 대한 관심은 올해도 계속됐다. 지난 7월 전남 보성 대원사 티...



올해 불교문화계는 지역문화와 연계한 축제와 산사음악회가 두드러진 한 해였다.

전국 사찰 음악회·단풍제·연꽃제 잇달아 송암 스님 생전 육성 채록 범패 원형 CD에

베트남 개관에 이어, 최근 서울 종로구 소격동에도 티베트박물관이 문을 열어 티베트의 생활과 문화, 불교전반에 대한 일반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티베트 스님들이 직접 헌법 동안 만다라 제작 시범을 보였던 불교사상박물관의 개관2주년 기념 '티베트 특별전'도 성황을 이뤘으며, <마음을 열어주는 티베트 영불 음악 CD>도 선보이는 등 티베트와 관련한 문화행사는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범패 시리즈 자료적 근거= 올해 불교 문화계에서 주목...

할 만한 것 가운데 하나로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유자 송암스님의 생전 육성 녹음테이프를 채록해 만든 한국의 범패 시리즈 <영산 CD>의 발매를 들 수 있다. 구음으로만 전해왔던 범패의 원형을 CD에 담아 보존하고, 후학을 위한 교재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는 범패 시리즈는 내년 초에도 화상곡, 백발가, 지소라 등 추가 분 CD가 나올 예정이다. 이밖에도 문광부가 선정할 올해의 문화인물 보조국사 지눌(5월)·대각국사 의천 스님(11월)과 관련한 문화행사가 송광사와 한태종 판문사 등에서 열려, 우리 역사와 문화 속에서 살아 숨쉬는 불교문화의 맥을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은자 기자 eel@buddhapp.com

BBS 송년·신년 특집

"귀 열리게 하네"

불교방송은 26일부터 1월 9일까지 대담·보도·음악·교양 등 다양한 연말연시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이번 특집 프로그램에는 눈에 띄는 것은 이웃돕기 프로그램인 '거룩한 만남' 28일 오전 9시 5분-오전 10시, 청취자들의 성공을 모아 불우 이웃에게 전달하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1년동안 소개된 이들의 방송이후 뒷모습을 상세히 소개해 준다. 또 행복스튜디오 26일-31일, 오전 11시10분-낮 12시에서는 텔런트 선우용녀와 김영철, 여성학자 박혜련씨 등 각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던 명사들을 초청, 한해를 돌아보고 새해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새 컬럼니스트 고진성씨가 진행하는 '음악의 마을' 26일-31일, 오후 3시5분-오후 4시45분과 예청자 노래자랑이 열리는 '다시듣고 싶은 노래' 저녁 7시15분-저녁...

9시), 한해 방송됐던 베스트 뮤지션을 엄선해 방송하는 '프라이뮤직' 26일-28일, 밤 11시5분-밤 12시에는 다양한 장르의 인기 음악을 한꺼번에 들을 수 있는 '정호의 기회' 24일-31일, 오후 5시10분-오후 6시에서는 동국대경원장 원운스님, 정호씨 지도법사 법륜 스님 등 올해를 빛낸 불자들을 초청해 대담한다. 월드컵, 경제, 종교화합 등을 주제로 1일부터 3일까지 저녁 7시15분부터 저녁 8시까지 열리는 신년 보도특집은 △올해의 세상을 위해(1월 1일, 오전 8시10분-오전 9시) △정기개혁을 위한 우리의 선택(1월 1일) △월드컵 16강의 아침이 밝아온다(1월 29일) △경기회보, 그 가능성을 진단한다(1월 30일) 등의 일정으로 방송된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p.com

문광부 '00의 해' 올해로 마감

문화관광부는 특정 예술장르를 선정해, 예산을 증점 지원하던 '00의 해' 방식을 올해 '지역문화의 해'를 끝으로 마감한다. 문화부는 내년부터는 1년 단위가 아닌 중장기적 프로젝트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문화부 자문기구인 21세기 문화정책위원회는 2002년에 발원 명칭을 놓고 지난 봄부터 고심해 오다가 월드컵 축구대회를 의식해 '문화환경 바꾸는 해'를 건의했었다. 그러나 일각에서 문화환경이 1년 안에 바뀌지는 것 아니냐, 또한 대상 자체가 모호해 효율성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에 문화부는 국민 문화의식 제고, 전통문화 보존, 문화 프로그램 개선 등등의 대형 사업별로 접근할 경우 '00의 해' 같은 특화는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려, '00의 해' 지정 방식을 마감하기로 결정했다. 문화부는 지난 1991년 '연극영화의 해' 지정으로 시작을 이어온 '00의 해' 지정 방식으로, '00의 해' 지정은 시작으로 춤·책·국악·미술·문학·문화유산·사진영상·건축문화 등을 차례로 거친 뒤, 지난해는 '새로운 예술의 해' 올해는 '지역문화의 해'로 지정했다.



김흥근이 쓰는 문학속의 불교

"그 동안 나는 어디서나 인식을 찾아보았지만, 책을 들고 한쪽 구석에 앉을 때를 제외하고는 아무 곳에도 없었다." 15세기에 살았던 토마스 아 켈피스의 이 말은 근대 이후 서구인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글언어 되어, 교양을 갖춘 독자인 이라는 이상적 인간상을 낳았다. 더불어 교양인의 글쓰기로서 '에세이'라는 장르가 탄생하였다. 서구에서 처음으로 '에세이(수상록)'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한 사람은 프랑스의 몽테뉴(1533-1592)이다. 그가 글쓰기로 '시도'해본 것은 '크세스(Que xas-je?) 즉 나는 무엇을 아는가'라는 소크라테스적 물음이었다. 그는 세계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졌는데, 그 중심에는 항상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의식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 물음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그가 시도한 것은 고전을 통해 옛 작가들과 교감을 나누는 일이었다. 그는 고전을 읽은 뒤,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구절을 인용하고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 <수상록>을 써내려 갔다. 인간에 대한 질문은 몽테뉴로 하여금 결국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이르게 하였다. '나는 나 자신을 재관...

몽테뉴의 '수상록'

맹신이 낳은 폐단 방치할 수 없는 인류 공동의 문제

그가 살펴본 인간 내면의 풍경은 어떠한 것이었나? 영혼의 밑바닥을 뽀얗게 하는 인간의 마음이란 얼마나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다. 자신을 비롯하여 주위의 누구를 살펴봐도 인간이란 곧 모순덩어리라는 사실을 부인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그는 인간성의 최후의 보루로 양심을 선택하고, 그곳에서 서구 인간사회를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스스로 '세상을 비판하는 이성적 자아'를 갖춘 근대적 지식인의 모델이 되었다. 그리고 이 비판적 자아는 20세기까지 이어져 내려오면서 근대서구문명을 구축하는 토대가 되었다. 하지만 수백년이 흐른 지금, 우리 시대를 주도하는 사상의 특징은 바로 이 '이성적 자아'에 대한 반성이라고 할 수 있다. 대량 살상 무기의 범람, 심각한 환경파괴, 분열을 거듭하여 황폐해진 인간성 등 '근대적 자아(Modern Ego)'에 대한 맹신이 낳은 폐단은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인류 공동의 문제가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몽테뉴의 후예들은 요즈음 '무아(無我)'를 배우고 있다. 나의 존재근거로서 그토록 확실해 보였던 '생각하는 자아'가 사실은 환상에 지나지 않으며, 그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수많은 문제가 파생하여 병이 깊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서구인들은 이제 불교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는 것이다. 자아 집착에 대한 최상의 처방전은 무아이다. 부처님은 몸이 갖은 화살자야에 대한 논란을 멈추고, 먼저 화살부터 뽑아내라고 가르치셨다. 내 몸에 박힌 화살의 재료와 성능에 대한 오랜 찬사를 멈추고 이제 그것을 뽑아낼 때다. 인간은 생태계의 암으로 전락한 지 오래이고, 자연파괴는 회색 불가늑한 마지노선을 넘고 있지 않은가.

불문학평론가

신심있는 불자님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상주 북장사 이미타 삼존불 개금불사 모연문

천주산 북장사는 신라 흥덕왕 3년인 833년에 전감국사 혜소스님께서 창건하신 1200여년 고찰입니다. 본래의 범당건물이 오랜세월 비바람에 썩고 기둥이 기울어 현재의 건물로 중수하였습니다. 범당에는 목조 아미타여래좌상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님이 좌우보처로 봉안되어 있습니다. 숙종 2년에 모신 북장사 부처님은 경남·북 일원에서 제일크고 거룩한 부처님으로 부처님 생신시에 인도교상미국의 우진왕(優進王)이 부처님 형상과 똑같이 조성해 모셨다는 전단향나무로 조성한 높이 2m, 10cm의 영험하신 부처님입니다. 저희 북장사에서 아미타 삼존불의 개금불사를 발원 하였습니다. 저희 북장사 아미타 삼존불 개금불사에 전국의 신심 있는 불자님의 정성스런 동참으로 복덕구축하신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소원성취 하시고 행복한 삶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경북 상주시 내서면 북장리 대한불교 조계종 천주산 북장사 주지 효담 합장

문의 : ☎(054)533-5103 ■ 농업온라인게좌 743058-51-005335 북장사

찾아오시는 길



교통편

- 고속버스 : 서울-상주 *택시이용
기차편 : 김천-상주 *택시이용
자가용 : 경북고속도로 영동 인터체인지에서 상주쪽으로 오시니 북장사 표지판을 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